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분명한 것

허재준*

지난 100년간의 세계경제 역사에서 경제의 대부분 영역에서 소비와 수출이 격감하고, 중간재 공급부진으로 생산활동이 멈춰서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사람들의 국경이동이 지금처럼 제약된 적도 없었다. 그 점에서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기는 전례가 없다.

7월부터 입국금지 혹은 입국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제하려던 각국 정부들도, 부분적 노선 정상화를 계획하던 항공사들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당초 계획을 접고 다시 ‘상황 주시’ 상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서너 달 앞의 상황조차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더욱 궁금해 하고 있다. 미래가 궁금하다는 건 그만큼 현재가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미래 담론이 유행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명제는 과연 어느 만큼이나 사실로 드러날까?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변화한다고 해서 전면적 핵전쟁 이후의 세계를 다룬 영화 속 핵전쟁 이전과 이후의 세상처럼 나뉘지는 않을 것이다. 문명사적 전환을 이야기하며 도시화 경향의 종언을 말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의식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받은 9.11때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도 유사한 말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10~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9.11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에서 전쟁의 개념을 현저히 바꿨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정도이다. 코로나 위기는 이런 계기들과는 달리 전면적으로 다른 세상을 열어 보일까?

9.11이나 후쿠시마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이 초래한 경제사회 변화의 문명사적 의의가 어떨 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향후 100년이나 200년간 일어날 변화가 그 문명사적 의의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몹시 거친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9.11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사람들이 두는 의미를 보면,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계(視界)로서는 10년쯤 후에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urjj@kli.re.kr).

지를 예견해 보는 정도가 현실적이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2년 내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이 좌절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코로나 위기 덕택에 다양한 비대면 기술관련 사업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가질 수 있는 전망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관찰된 경제활동 양태에서 오래갈 관행과 코로나 종식과 함께 금세 그칠 관행을 구별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현재 비대면사회 확대에 따라 변화할 시장 양상이 화두가 되어 있다. 노사관계 이해당사자의 다른 한 축인 노조는 무엇을 화두로 삼아야 할까. 기업의 상황이 노조 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화두의 한 축은 기업의 생존전략과 중첩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원격진료가 불가피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늘어나는 갈등과 인공지능 변호사 시대에 제대로 값싸고 질 좋은 변호서비스나 상담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통적 택시사업 종사자의 이익을 진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플랫폼에서 통행료를 징수 하던 직원은 어떤 숙련을 새로 익힐 수 있고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직종단체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받는 대신 늘어나는 특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소비자보호단체나 정부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전문성을 키워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사회 변화에 노조도 잘 대응해야 이슈를 선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고 대중의 지지를 받아 조직률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1970~1980년대 세계경제 상황이 어려웠을 때마다 한국의 노사관계 이해당사자들은 유연한 적응력을 발휘해 선진국 경제를 따라잡는 계기로 삼았다. 향후 2년간 많은 나라들이 작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도 힘겨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충격은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지난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과 조직과 국가만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러한 노력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분명하다. **KLI**